

# 東坡 蘇軾을 바라보는 조선중기 사대부의 엉갈린 시선들

- 道文論을 중심으로 -

오 세 현 \*

- 1. 머리말
- 2. 作文害道論에 근거한 조선중기의 蘇軾 비판
- 3. 조선중기 소식에 대한 긍정론의 성격
- 4. 맺음말

## 1. 머리말

北宋의 문인 東坡 蘇軾(1036~1101)이 우리나라 문학과 예술 분야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은 기존 학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sup>1)</sup> 문장가, 시인, 서예가, 화가, 유학자, 요리사, 건축가, 의사 등 다재다능한 소식의 면모를 제시하고,<sup>2)</sup> 柳宗元의 「種樹郭橐駝傳」과 함께 소식의 글 「日喻」가 『莊子』적 글쓰기의 창조적 발전을 가장 모범적으로 모색한 예임을 지적하며,<sup>3)</sup> 당대의 정치적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예술 분야의 연구는 소식의 서화가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수용된 양상에 대한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선희, 김춘희, 2009 「蘇軾의 詩書畫論이 高麗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中國人文科學』 第41輯 : 신지원, 2009 「당호를 통해서 본 19세기초 소동파 관련 서화 소장 문화와 대청 문화 교류」 『한국문화』 45 : 이태호, 2013 「새로 공개된 謙齋 鄭敎의 1742년작 〈漣江壬戌帖〉: 蘇東坡 赤壁賦의 조선적 형상화」 『동양미술사학』 2권.

2) 류종목, 2007 「팔방미인 소동파」 『중국어문학』 제49집.

3) 강성조, 2008 「『莊子』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 유종원 「種樹郭橐駝傳」과 소식 「日喻」에 대

경쟁자였던 王安石과의 비교를 통해 新法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립했지만 문학적 교류가 있었음을 추적한 것<sup>4)</sup> 등은 소식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소식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에 있음을 말해준다.<sup>5)</sup>

소식의 시문이 고려와 조선에 미친 영향력을 추적한 문학 분야의 연구들은 비교적 이를 시기부터 등장했다. 徐居正의 『東人詩話』, 金萬重의 『西浦漫筆』 등에 나타난 소식 시문의 영향을 추출하거나,<sup>6)</sup> 李奎報와 李睟光, 柳夢寅 등 고려와 조선 문인들의 소식에 대한 평가와 歐陽脩, 曾鞏 등 동시대 중국 문인과 비교한 연구<sup>7)</sup> 등이 그에 해당한다.

소식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나며 차츰 대상 시기와 주제를 세분화 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문은 물론 기호와 행적에 공감했지만 비성리학적 사상을 근거로 강한 비판을 보인 丁若鏞의 소식에 대한 褒貶을 지적하고,<sup>8)</sup> 소식이라는 존재와 그의 시문이 고려에 알려진 최초의 시기를 추적했다.<sup>9)</sup> 또한 소식의 초상화를 소장하거나 소식의 생일에 제사를 지냈던 金正喜와 申緯의 소식 숭앙을 적극 계승하며 학문의 모범으로 설정한 朴永輔의 소식 추앙을 밝혔다.<sup>10)</sup>

최근에는 정치적 좌절을 겪는 동안 소식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소식의 和陶詩를 모방해 직접 화도시를 지은 申欽의 시를 조명하고,<sup>11)</sup> 修學期부터 소식을 學詩의 전범으로 삼은 李穡이 소식의 시를 수용한 양상을 밝히고,<sup>12)</sup>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18세기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少論系

한 영향을 중심으로」『道教文化研究』 제29집.

- 4) 吳憲必, 2009 「王安石과 蘇軾의 정치와 문학」『中國文化研究』 第15輯.
- 5) 현재도 다양한 종류의 소식 評傳이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다. 임이당(진영희 옮김), 2012 『소동파 평전: 쾌활한 천재』, 지식산업사 : 왕수이자오(조규백 옮김), 2013 『소동파 평전: 중국의 문호 소식의 삶과 문학』, 돌베개.
- 6) 李昌龍, 1985 「朝鮮朝 詩話에 投影된 蘇東坡」『전이와 수용: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1권.
- 7) 許捲洙, 1988 「蘇東坡 詩文의 韓國의 受容」『중국어문학』 제14집.
- 8) 金相洪, 2004 「茶山의 蘇東坡論」『南冥學研究』 제18집.
- 9) 정선모, 2006 「高麗시대 蘇東坡詩文集의 受容過程에 대하여」『한문학보』 제15집.
- 10) 남영진, 2010 「錦船 朴永輔와 蘇東坡」『韓國漢文學研究』 第45輯.
- 11) 정숙인, 2012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飲酒」 20首 연구」『우리문학연구』 35권.

문인들의 창작 활동 과정에서 소식이 단순한 作詩의 전범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까지 승상되었음을 지적했다.<sup>13)</sup> 文字獄의 시작이자 소식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烏臺詩案과 연관된 소식의 글이 과거제 개혁과 인재 등용에 대한 불만 및 신법과 신진관료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sup>14)</sup> 이는 新舊 대립이라는 정치적 역관계 속에서 문장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소식에 대한 문학 관련 연구는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양이 축적되었다.<sup>15)</sup>

소식에 대한 연구는 문학뿐 아니라 사상 및 학문과 관련된 연구도 확인된다. 禮와 관련된 소식의 글 「禮以養人爲本論」을 분석해 예의 절차에 관한 無定論을 주장한 소식이 당시 儒者들의 변통 없는 보수성을 비판했다는 연구는 유학자로서 소식의 면모를 조명한 것이다.<sup>16)</sup> 古文家의 貫道之器 주장과 도학자의 文以載道 관념에 근거해 소식의 문장과 도학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청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한 연구 역시 道文論의 관점에서 소식의 사상적 위치를 살펴본 것이다.<sup>17)</sup>

이처럼 소식을 문학 이외의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문장가인 동시에 유학자 그리고 道와 文의 상관관계에 기반해 소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南宋을 거치며 성리학의 道統이 정립되고 元代에 성리학이 官學의 지위를 획득하는 역사적 과정과 소식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 북송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명이었던 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소식을 단순히 문장에 뛰어났던 인물로 바라보는 인식의 형성이 성리학의 도통 정립과 밀접하

12) 어강석, 2012 「牧隱 李檣의 蘇東坡詩 受容 樣相」『어문연구』 40권 1호.

13) 김영주, 2012 「18세기 少論系 文인의 記夢詩에 나타난 意識의 諸樣相」『동방한문학』 51권.

14) 정세진, 2013 「烏臺詩案에 연루된 文章에 대한 고찰」『중국어문학』 63권.

15) 이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학계의 연구 역시 상당한 양이 된다. 본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16) 洪瑀欽, 2008 「蘇東坡의 禮論 小考: 「禮以養人爲本論」을 중심으로」『東洋禮學』 제19집.

17) 蘇軾의 道文論을 청년 시기의 '文以盡意' 단계, 장년 시기의 '寓意於物' 단계, 노년 시기의 '技道兩進' 단계로 구분했다. 崔在赫, 2011 「蘇軾 文道 관념의 완성과정 연구」『中國語文學論集』 제70호.

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정적 평가를 주도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朱熹이다.<sup>18)</sup>

주희의 소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道(도학)와 文(문장)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다. 주희는 송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던 문장의 역할을 ‘새로운 도학’이 대체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녔던 인물이다.<sup>19)</sup> 이러한 주희의 주장이 기득권세력에 대한 신진세력의 비판이라는 이념적 공격의 성격이 강했음을 송대 사회의 실질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程頤와 주희보다 소식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sup>20)</sup> 조선시대 문인들의 소식에 대한 평가를 조명한 기존 연구 중에도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 것이 있다.

조선중기 唐詩의 유행과 성리학의 융성과 더불어 소식을 비판했던 주희의 논의가 당시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소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는 것이다.<sup>21)</sup> 실제로 조선중기 도학을 주창했던 인물들은 소식과 관련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논의를 주도했는데, 핵심은 소식의 사상이 지닌 非性理學的 측면에 대한 공격이었다.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의 이단 비판을 조선중기의 성리학자들이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논의가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어떠한 위상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조선중기 唐詩의 유행과 소식에 대한 비판 논의를 계승하면서, 조선후기에 이르면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청나라 문예사조의 영향으로 인해 소식에 대한 열기가 다시 고조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sup>22)</sup> 조선초기에는 고

18) 黃渭周, 1993 「朱子의 蘇東坡 排擊과 朝鮮初期 漢文學」『嶠南漢文學』5.

19) 朱熹가 친구呂祖謙(1137~1181)과 6촌 동생 程洵(1135~1196)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된 『朱子大全』 제33권과 41권에 수록된 편지들에서 주희의 문장과 도학에 대한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20) Peter K. Bol(심의용 옮김), 2008 『중국지식인들과 정체성(This Culture of Ours)』, 북스토리, 583-584면.

21) 조규백, 2012 「조선조 문인의 蘇東坡 인물 및 산문에 대한 평가」『대동문화연구』 제80집.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전시기의 사대부들이 보인 소식의 인물평과 산문에 대한 평가를 열거하며 조선중기 程朱學의 유행으로 소식을 비판한 주희의 학설이 조선시대 문인의 소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했다.

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소식의 인물과 문장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었지만, 조선중기 관념화되고 空論化된 성리학으로 인해 문학을 보는 시각이 협소해 졌고 그 결과 주희가 소식을 비판했던 맥락 그대로 조선중기의 문인들이 소식을 비판했다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조선중기 성리학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평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리학이 조선초기부터 통치이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방면에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sup>24)</sup> 왕조의 교체라는 정치적 격변과 성리학의 정착이라는 사상적 변화는 반드시 동일한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성리학이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하게 지배하지 못했고, 또한 관념화되거나 공론화 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소식에 대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선중기 三唐詩人的 등장과 唐詩의 유행으로 인해 宋詩와 더불어 송시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의 시문에 대한 열기가 퇴조한 것은 물론 소식에 대한 비판의 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唐詩에 대한 호응이 宣祖 연간 문단에 유행했던 사실과 소식에 대한 비판의 논의가 등장했던 것 사이에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기존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소식의 시문을 긍정했던 조선중기의 많은 문인들은 소식의 시를 당시와 비교하며 폄하하지 않았고, 여전히 소식의 시와 산문이 지닌 가치를 긍정했다. 송시보다 당시가 더 훌륭하다며 직접적인 우열의 비교를 했던 李暉光조차 소식

22) 17세기 漢文學史가 道學派 일변도로 치우쳤고, 이 도학파들이 문학사에 끼친 폐해에서 벗어나 다시 숨통이 트이는 것이 英祖와 正祖代라고 인식하는 구도는 상당히 오래되고 견고한 국문학계의 기본 틀로 보인다. 朱昇澤, 1996 「朝鮮中期 道學派와 詞章派의 對立 樣相: 許筠과 三唐詩人을 중심으로」『퇴계학』 제8집, 12-14면.

23) 許捲洙, 1988 앞의 논문, 55-56면. 이러한 立論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조규백, 2012 앞의 논문, 237-238면 참조.

24) 이것은 조선중기 성리학의 융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의문을 제기했다. 黃渭周, 1993 앞의 논문, 11-12면 참조.

의 문장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보였다.<sup>25)</sup> 이러한 모습은 조선중기 문단의 명성을 얻었던 다수의 문인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그러므로 조선중기 새롭게 등장했던 당시의 유행과 소식에 대한 비판 논의가 반드시 시소의 원리처럼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sup>27)</sup>

셋째,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해와 확산에 대한 전기—중기—후기의 순환적 이해 방식에 대한 의문이다. 조선중기에 성리학이 극성하고 교조화 된 동시에 현실을 외면한 혓된 논의가 되었다가 조선후기 성리학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다는 순환적 이해는 조선중기 소식에 대한 비판론이 조선후기에 다시 소식에 대한 존중의 열기로 재등장했다는 또 다른 순환론을 만든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이 순환론의 핵심은 조선중기에 성리학이 ‘헛된 논의[空論]’가 되었다는 지점과 함께 혓된 논의가 되어 버린 성리학의 교조 주희가 강조했던 소식 비판이 조선중기 사대부 사회를 주도하여 소식에 대한 비판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조선후기 사회에서 성리학은 쇠퇴했고 그와 더불어 비판에 직면했는가?

조선중기에 성리학은 정착과 확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모습보다는 여전히 진행형에 있다고 판단되는 면모들을 많이 보여준다.<sup>28)</sup> 이황이나 이이처럼 탁월한 성리학자가 등장하여 난해한 형이상학적 논의들을 정리하여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그 논의들을 계승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禮書를 편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조선중기 사회가 성리학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는 변화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리학 사회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중기 성리학의 空論化에 기반한 소식에 대한 비판, 조선후기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소식에 대한 존중의 재등장이라는 순환적 사고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5) 李晦光, 『芝峯類說』 권8, 文章部1 「文」.

26) 唐詩를 추종했던 許筠과 李植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식의 시문에 대한 추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許筠, 『惺所覆瓿藁』 권13, 「歐蘇文略跋」; 李植, 『澤堂集別集』 권14, 「作文模範」.

27) 唐詩와 宋詩를 추종했던 조선시대 문인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박순철, 2012 「韓國詩話에 나타난 尊唐派·尊宋派의 評論研究: 李白, 杜甫, 蘇軾, 黃庭堅 評論을 中心으로」, 『中國人文科學』 第52輯.

28) 吳世炫, 2012 「조선중기 性理學의 위상과 賀谷 張維(1587~1638)의 사상적 면모」, 『한국 사연구』 156, 86-90면.

## 2. 作文害道論에 근거한 조선중기의 蘇軾 비판

李圭景(1788~?)은 『明儒學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道學은 하나이지 둘일 수 없다. 도학의 다르고 같음은 주희와 육구연에서 시작하여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도학의 門戶는 姚江(양명학파)에서 비롯하여 그 스승과 벗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漢과 唐의 봉당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봉당 중에도 군자의 당이 있고 소인의 당이 있다. 宋의 洛黨과 蜀黨의 분파가 있었던 것은 바로 문장과 도학이 각자 당이 된 것이다. 문호가 나누어집에 이르러 斯文이 어지러워졌다.<sup>29)</sup>

양명학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취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었던 『명유학안』에 대해 이규경은 위와 같이 비판적인 견해를 취했다.<sup>30)</sup>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학과 문장의 분기를 바라보는 이규경의 관점이다. 程頤를 중심으로 하는 洛黨과 소식을 대표로 하는 蜀黨의 대립이 결국은 도학과 문장이 분기하여 각자의 당을 이룬 계기이며, 이는 결국 斯文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적벽부」를 비롯한 명문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불후의 명성을 지녔던 소식에 대해 이규경은 비롯한 19세기의 사대부들은 ‘사문을 어지럽힌 소인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자주 보였다.<sup>31)</sup>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식을 정이와의 정치적 대립과 연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선 사대부들의 인식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의 글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經史雜類 其他典籍「明儒學案辨證說」“道學一也不可二者也。道學之異同，自朱·陸爲始，門徒創之也。道學之門戶，自姚江爲首，師友成之也。頗類漢·唐之朋黨，其朋黨之中，有君子焉，有小人焉。宋有洛·蜀之分，是文章與道學，各自爲黨也。至於門戶之分，而斯文亂矣。”

30) 이규경은 이어지는 글에서 『명유학안』에 다양한 유학의 문호들을 수록한 것은 군자는 같은 것만을 이해하고 다른 것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것 역시 군자의 忠恕의 도라며 『명유학안』에 수록된 다양한 문호들이 비록 그 흐름은 서로 다르지만 근본은 같다고 황종희에 대한 변론으로 마무리 했다.

31) 丁若鏞(1762~1836) 역시 소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던 대표적 인물이다. 金相洪, 2004 앞의 논문, 17-29면.

宋의 여러 현인들이라고 운운한 것은 단지 반드시 군자와 소인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요, 서로 부합하지 않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蜀黨과 같은 것은 진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가령 程子가 정사를 한다면 모든 촉당을 다 물리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만 다스리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蘇東坡(蘇軾)야 쓸 수 없겠지만, 그 나머지는 또한 군자가 많으니, 어찌 다 버리겠습니까.<sup>32)</sup>

1579년 이이가 성훈에게 답한 편지 내용 중 일부인데, 이 편지에서 이이가 논의한 주된 내용은 沈義謙과 金孝元의 대립이었다. 東西分黨의 발화 지점이 되었던 두 사람의 대립을 조정하고자 했던 이이는 이 편지에서 사헌부가 심의겸을 소인이라 하고 西人을 邪黨이라 하는 것을 반박하며 심의겸을 두둔했다. 그러면 서 북송대 정이와 소식의 대립을 예로 들며 소식을 소인으로 지목하며 비판했다.

이이는 조선중기 성리학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학자로서 누구보다 문장에 대한 도학의 우위를 강조했던 인물이다. 이이는 황해도 文憲書院에 崔沖의 위패를 봉안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소식을 단순히 문장에만 능했던 인물로 평하였다.<sup>33)</sup> 당시 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던 봉당과 관련해 이이가 정이와 소식을 언급했던 것은 그만큼 조선중기 도학자들에게 정이가 강조한 도학의 가치를 내세워야 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중기 성리학의 道統 정립과정에서 소식이 비판되어야 할 중요한 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송대 도학의 기치를 내세웠던 정이가 당대 사회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던 소식의 존재감을 극복하기 위해 ‘作文害道論’을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종대 조정에 진출했던 신진 사림 일부의 도학과 문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종대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문장과 도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도

32) 李珥, 『栗谷全書』 권11, 「答成浩原(己卯)」 “若宋之諸賢云云, 只言不必君子小人相攻擊云爾, 非謂不相符合矣。但如蜀黨, 固非矣。假使程子爲政, 則將舉蜀黨而盡斥之乎。抑治其不可服使者乎。愚意蘇東坡則不可用也, 其餘亦多君子, 胡可盡棄乎。”

33) 이이는 예전에 星州書院에 李兆年을 봉안하는 과정에서 이조년의 친불교적 성향을 이유로 지역 선비들이 반론을 제기하자 李滉이 程頤와 朱熹를 正位로 하고 이조년을 鄉賢으로 하여 정했던 일화를 거론하며, 일생 공자를 존중했던 崔沖은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숭앙하던 蘇軾과 비교하여 훨씬 우월함을 강조했다. 李珥, 『栗谷全書』 권12, 「答崔彥明」.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거론되었던 주된 논제가 문장의 폐단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심에 소식이 있었다. 고려 중기 이후로 구양수와 함께 소식은 우리나라 문인들에게 송대의 문장을 대표하는 모범으로 간주되었다.<sup>34)</sup> 비록 소식이 고려에 서적을 전해주는 것을 반대하고 고려를 외방의 오랑캐로 여겼던 이력이 간혹 언급되기는 했지만,<sup>35)</sup> 이를 빌미로 소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종대 도학을 주창했던 일부 사림은 성리학의 도통을 강조하며 소식과 소식의 문장을 전면에 내세워 비판하기 시작했다.

중종 초반 『대학』을 진강하던 참찬관 金世弼(1473~1533)은 ‘속된 선비들의 記誦과 詞章의 풍습’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당시 조선의 젊은 선비들이 오로지 문장에만 전념하고 경학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함께 경연에 참석했던 李自堅(1454~1529)은 송나라의 程顥과 정이가 ‘진정한 유학자[眞儒]’였음에도 소식은 이들을 옳지 않다며 혈뜯고 비웃었고, 이로 말미암아 양측의 선비들이 서로 비판하고 결국 붕당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다.<sup>36)</sup> 성리학의 도통에 대한 공감과 도학의 가치가 사대부 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하던 주된 이유를 소식과 소식의 문장에 열광하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로 진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묘사화 이후 禁書로 취급되었던 『近思錄』을 강독하던 경연에서 孫洙(?~1522)는 정이를 송나라 理學의 시조로 평가하면서 그러한 정이의 학문을 偽學으로 지칭한 소식을 비판했다.<sup>37)</sup> 그러자 경연에 참석했던 신하들과 국왕은 모두 문장과 도학의 관계에서 도학이 주가 되고 문장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찬성했다. 문장과 도학의 상관관계에 기반한 主從의 논의는 기묘사림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소식은 문장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34) 『成宗實錄』成宗 6年(1475) 5月 7日. 徐居正이 우리나라의 시문을 찬집하여 인쇄 반포하고자 하며 옛날 문장을 언급하며 당나라의 한유와 유종원, 그리고 송나라의 구양수와 소식을 최고로 평가했다.

35) 『成宗實錄』成宗 8年(1477) 1月 25日.

36) 『中宗實錄』中宗 5年(1510) 1月 25日.

37) 『中宗實錄』中宗 12年(1517) 11月 8日.

趙光祖는 중종에게 군주가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강조하며 북송 王安石의 신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金淨(1486~1521)이 조광조를 거들며 소식을 沈繼祖에 비유하며 비판했는데,<sup>38)</sup> 그 비판의 초점은 정이와 소식의 정치적 대립이었다. 김정을 비롯한 기묘사림들에게 주희를 僞學의 우두머리라며 비판했던 심계조는 군자를 해치는 소인의 대명사였는데, 소식 역시 심계조와 같은 인물로 비판받았던 것이다.

당시 김정과 조광조는 스승 金宏弼의 문묘종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문장과 구분되는 도학의 창시자로서 김굉필을 추앙하는 논의의 중심에 중종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sup>39)</sup> 이들이 내세운 성리학의 도통 정립 운동에 북송대 정이와 주희의 학문이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광조와 김정이 중종에게 김굉필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며 아뢴 당일의 실록 史評에서도 김굉필의 학문과 처신이 한결같이 정이와 주희를 지표로 삼아 聖學에 전념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굉필이 처음에는 김종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했지만, 스승이 문장에 치우친 면모를 보이자 스승의 문하에서 나와 성학에 전심했음을 강조했다.<sup>40)</sup> 중종대 성리학의 도통 정립 과정에서 소식에 대한 비판이 행해지는 맥락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明宗代 후반 조선의 성리학 이해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성리학에 대한 깊은 소양을 지닌 도학자들이 조정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들의 조정 진출은 국왕의 특명에 의한 천거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명종대 후반 ‘遺逸의 선비와 經學에 밝은 인물’로 천거를 받았던 학자들이 직접 국왕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韓脩가 精一執中의 공부법과 격물치지를 제안하자, 南彥經은 理氣의 차별 및 성인과 범인의 구별을 언급하며 정자의 학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함께 자리에 참여했던 林薰(1500~1584)은 다음과 같이 문장과 구분되는 도학의 특징을 지적했다.

38) 『中宗實錄』 中宗 13年(1518) 4月 28日.

39) 金勳埴, 2006 「寒暄堂 金宏弼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 『東方學志』 133, 41-46면.

40) 김종직과 김굉필의 갈등은 조정에 출사하는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했지만, 가장 중심이 되었던 문제는 도학에 관한 입장의 차이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성우, 2009 「15세기 중·후반~16세기 道學運動의 전개와 松堂學派의 활동」 『歷史學報』 제202집, 14-18면 참조.

옛사람의 글을 읽어보니, 임금의 정치 교화는 수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팔조목에서는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 근본을 삼는다.” 하였고, 『중庸』의 九經에서는 “수신이 구경의 근본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신하는 방법에도 역시 기본이 있으니, 그 기본을 알지 못하면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韓愈가 道를 논할 때에 격물치지를 말하지 않았더니 옛사람들은 그를 머리 없는 학문이라 기uong하였고, 소식이 학문을 논할 적에 성의정심을 언급하지 않았더니, 선유들은 그가 학문하는 기본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을 놓아두고 어떻게 학문을 하겠습니까.<sup>41)</sup>

도와 학문을 논하면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도학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유와 소식에 대한 비판의 논지였는데, 주희가 남송의 사회·정치 질서에 대한 구상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했던 『대학』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sup>42)</sup> 또한 자리에 함께 했던 李恒이 명종에게 강조했던 人心과 道心의 구분 및 理氣의 차이에 대한 논의 역시 주희가 문장에 대한 도학의 우위를 위해 강조했던 점이라는 사실은 소식을 들러싼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주희가 정이를 비롯한 북송오자의 학문을 집대성해 도통을 정립할 때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이 바로 『尚書』 大禹謨 편의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는 16자 心法이었다. 이 16자 심법을 궁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이 진정한 도학이고 이를 토대로 도통을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이 주희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희의 도학과 도통에 대한 논의는 人心과 道心을 구분하고 천리와 인욕의 구분을 중요한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당말의 한유 또는 소식을 비롯한 북송대 여타 학자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보인다.<sup>43)</sup>

주희의 도학에 대한 강조가 문장에 대한 비판을 동반한 이유는 남송 사회에서

41) 『明宗實錄』明宗 21년(1566) 9월 12일 “但讀古人之書, 見人君政化, 不過修身. 是以大學八條曰, 壹是皆以修身爲本, 中庸九經曰, 修身爲九經之本. 然修身之道, 亦有其本, 苟不知本, 無以爲學. 韓愈論道, 不言格致, 古人以無頭學問譏之, 蘇軾論學, 不言誠正, 先儒以爲不知爲學之本. 捨格致誠正, 何以爲學.”

42) 閔丙禧, 2008 「朱熹의 “大學”과 士大夫의 사회·정치적 권력: 制度에서 心의 “學”으로」 『中國史研究』 第55輯, 81-89면.

43) 이승환, 2004 『유교 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127-128면.

도학 보다는 문장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학의 훌륭함을 강조해도 여전히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도학 보다는 현실적인 효용과 사회적 가치를 지닌 문장을 선호했기 때문에 정이가 주장했던 도학의 영향력이 주희 당대에는 큰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sup>44)</sup> 주희가 소식을 비판한 이유는 소식의 영향력이 문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개 文과 道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만약 도 밖에 物이 있다면 글을 짓는 자가 자기 뜻대로 쓰더라도 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 밖에 물이 없다면 한 가지라도 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도에 해가 될 것입니다. (중략) 만일 사방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외우기를 지금의 蘇氏(蘇軾)의 설과 같이 하였다면, 맹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어찌 가만 두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소씨의 학문은 위로는 性命을 말하고 아래로는 정치의 이치를 논하니 그 말하는 바가 다만 屈宋과 唐景 정도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처음에는 그 문장 때문에 좋아하여 구차하게 하루아침의 이익에 빠지고, 오래 되면서 점점 골수에 빠져들어 다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을 망치고 풍속을 퇴폐시키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sup>45)</sup>

주희는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식의 탁월한 문장력에 매료되기 시작했다가 점차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망치고 사회적으로는 풍속을 망치는 지경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주희의 이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결국 문장과 도학의 불일치, 나아가 도학보다 더 큰 사회적 입지를 갖고 있던 문장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북송대에 ‘仁義’라고 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의미에서 유가의 가치를 도통의 중심 내용으로 삼았던 것을 비판한 주희가 『중용』과 『대학』을 비롯한 四書에 기반해 도의 전승이 문장으

44) 朱熹는 范祖禹가 程顥와 程頤를 따라 오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과거시험을 위한 문장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蘇軾을 모범으로 삼았음을 비판했다. 朱熹, 『朱子大全』 권 31, 「答張敬夫」.

45) 朱熹, 『朱子大全』 권33, 「答呂伯恭 5」 “夫文與道，果同耶異耶。若道外有物，則爲文者可以肆意妄言，而無害於道。惟夫道外無物，則言而一有不合於道者，則於道爲有害。(중략) 若使流傳四方，學者家傳而人誦之，如今蘇氏之說，則爲孟子者亦豈得而已哉。況今蘇氏之學，上談性命，下述政理，其所言者非特屈宋唐景而已。學者始則以其文而悅之，以苟一朝之利，及其既久，則漸滲入骨髓，不復能自解免。其壞人材敗風俗，盍不少矣。”

로 대표되는 기존 사회의 제반 가치가 아니라 未發之中을 체득한 마음의 전승으로 규정했던 것과도 연관이 깊다.<sup>46)</sup> 이와 같은 문장과 도학의 관계 변화를 추구하는 도학 중심의 논의가 조선중기 소식에 대한 비판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安珦(1243~1306)의 사당 晦軒祠를 건립했던 周世鵬(1495~1554)은 주희의 백록동서원을 모범으로 한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다음에 『竹溪志』를 편찬하면서, 주자의 도학에 대한 열의를 후학들이 본받아야 함을 강조했다.<sup>47)</sup> 그러면서 도학의 폐해에 주된 원인이 되는 문장과 연관하여 소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전개했다.

세상 사람들은 鄉愿과 楊墨과 老佛이 이단임은 알고, 蘇氏(蘇軾)가 그보다 더 큰 이단임은 알지 못한다. 저들은 속임수 학문으로 이치를 말하여 우주를 삼키며 뱉고 산과 강을 치고 거꾸러뜨리니, 다만 한 세상을 警動시켰을 뿐 아니라, 또한 백대를 농락했다. 이에 거만하게 스스로 과시하면서 바른 선비를 업신여기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아, 결국 伊洛(程朱學)의 은택이 세상에 젖어들지 못하게 하고 광란의 思潮가 세상을 풍미하게 했다. 백여 년이 지나 주자가 큰 소리로 물리치며, “소씨 형제와 張儀·蘇秦과 노불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한 번 나오자 천하가 비로소 미혹에 빠진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sup>48)</sup>

주세봉의 핵심 논의는 공자와 맹자가 각기 향원과 양목을 배척했고, 二程이 노장과 불교를 물리쳤던 일과 그 정당성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소식이 더욱 큰 이단임을 알지 못하던 상황을 주자가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주세봉은 “소식의 말이 높은 것은 有無에 출입하고 의리를 원만하게 이루지만, 낮은 것은 이해를 진술하여 사람의 마음에 매우 가깝게 한다.”라는<sup>49)</sup> 주희의

46) 임명희, 2013 「唐宋 시기 道統 내용의 전환: 唐宋에서 北宋시기 도의 전승 내용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36집, 307-314면.

47) 周世鵬, 『竹溪志』「竹溪志序」.

48) 周世鵬, 『竹溪志』 권6, 別錄「闡邪」“然世皆知鄉愿楊墨老佛之爲異端, 而不知蘇氏之爲大異端。彼其學謫而言成理, 吞吐宇宙, 捏倒山河, 不但驚動一世, 而亦足以驅駕百代。於是, 倚肆自大, 媚侮正土, 無少忌憚, 至使伊洛之澤, 竟不得漸于時, 其狂波滔天, 猶不可遏。厥後又百年然後, 朱子大聲闡之曰, 蘇氏兄弟儀秦老佛, 合爲一人。斯言一出, 天下始識其昏墊而有所懼矣。”

언설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 소식의 문장이 지닌 폐단을 비판했다. 특히 소식의 학문이 바르지 않으면서도 性理를 말했기 때문에 그 폐단이 양주와 북적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주희의 견해가 주세봉에게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설총과 최치원, 고려시대의 김부식과 이규보 등이 모두 문장으로 천하에 명성을 날렸지만, 근본과 실질을 망각한 채 문장으로 꾸미는 것만을 자랑했다고 비판했다.<sup>50)</sup>

주세봉은 비록 소식의 글이 공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정이를 비롯한 도학자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며 성현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주범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아닌 ‘사이비’ 유학자 소식을 본받으려는 당시의 많은 학자들에게 경계를 주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밝혔다. 이처럼 주세봉의 분명한 목적의식의 근저에는 무엇보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지속해서 공인된 문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주희가 도학의 증진과 도통의 정립을 위해 노력했던 가장 주된 논점이 불교 비판과 함께 문장에 대한 도학의 우위 확보를 위한 도문일치론이었다는 것과도 연관된다.

소식은 친불교적 성향을 지녔으면서 문장의 사회적 가치를 대변했기 때문에 주희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도 같은 존재였다. 특히 주희 이전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이 불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남송대 불교 비판은 유학자들의 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불교적 성향 비판에 집중되었는데,<sup>51)</sup> 이것 역시 소식에 대한 주희의 강력한 비판에 이유를 제공해 주었다. 더구나 소식은 북송대 유불도 삼교의 융합을 지향했던 사상적 흐름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고, 주희가 도학을 집대성하며 수행했던 이단 비판의 방향이 유교 안에 녹아 있는 불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유교와 불교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52)</sup>

49) 朱熹, 『朱文公文集』 권30, 「答汪尚書」 “蘇氏之言, 高者出入有無, 而曲成義理, 下者指陳利害, 而切近人情.”

50) 周世鵬, 『竹溪志』 권6, 別錄 「闢邪」.

51) 金美榮, 1998 『朱熹의 張九成 비판에 나타난 儒佛의 경계』 『中國學論叢』 제11집, 271-272면.

52) 蔣義斌, 1984 「朱熹之排佛及其對王安石之評價」 『史學彙刊』 第13期.

趙翼(1579~1655)은 주세붕과 같이 주희의 소식 비판을 계승했던 조선중기의 대표적 인물이다. 四書를 중심으로 經學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조익은 특히 주희의 『大學章句』에 기반해 이를 부연하고 심화시켰다.<sup>53)</sup> 조익은 정자와 주자가 사람들에게 성현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법을 가르칠 때 四書를 가장 핵심적인 요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서를 접하는 사람들은 도를 구하려는 뜻을 갖지 않고 오히려 製述의 도구로 삼아 科第에 이용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조익은 문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그 사람이 지닌 식견의 통달 여부, 마음의 정대함 여부, 언행의 올바름 여부와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장이 비록 탁월하더라도 그 사람됨이 좋지 못하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며 그러한 예로 許筠을 지목하면서, 문장의 분야에서 절세의 재능을 지녔으면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이 이루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sup>54)</sup> 그러면서 문장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처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문장에 전념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러므로 배움에 입문한 초학자들은 문장에 상당한 공력을 기울이고 글뿐만 아니라 시에도 힘을 쏟았던 주자가 아니라 글 짓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정자를 법도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익의 비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장 자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기존의 관념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朱子大全』 중에서 각 종류별로 초록 한 글을 모아 『朱文要抄』를 편찬한 조익은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자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주자의 학문과 도덕이 공자·맹자와 주자(周敦頤)·정자(程顥, 程頤)의 계통을 이었다는 것만 알 뿐, 문장의 측면에서 세상의 종장이요 대가라고 하는 한(韓愈)·유(柳宗元)·구(歐陽修)·소(蘇軾)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아는 자가 아니다. (중략) 주자가 글을 읽은 것은 광대해서 친하의 서적을 모두 독파할 정도였으니, 한·유·구·소가 뽑아서 법도로 삼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 波流를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주자의 글은 육경과 『논어』, 『맹자』에 뿌리를 두고, 서한 이전 諸子의 글까지 응용했으며, 한·유·구·소의 글까지도 모두

53) 姜文植, 2009 「趙翼의 『大學』 연구와 『大學困得』의 특징」 『朝鮮時代史學報』 49권, 129-130면.

54) 趙翼, 『浦渚集』 권20, 雜著 「開惑淺語」.

채취했다. 그러므로 주자의 글은 그 기미가 완전하고, 그 법도는 정밀하며, 그 내용은 명백하고 깊고 절실하며, 그 표현은 넉넉하고 자세하다.<sup>55)</sup>

성리학자 조익의 입장에서 도학과 문장의 우열 관계는 너무도 자명한 것이지만, 그러한 당위와 달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문장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주희의 문장이 지닌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다. 조익은 주희의 문장이 문장의 대가들인 한유, 유종원, 구양수, 소식의 문장보다 못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대하며 학문은 물론 문장의 측면에서도 주희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sup>56)</sup>

조선중기 의고문론을 주도했던 尹根壽와 조선중기 문장 사대가의 일원이었던 李廷龜에게 문장과 학문을 배웠던 조익은 20대에 접어들어 성리학에 전념한 이후에도 문장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sup>57)</sup> 그런데 조익의 문장에 대한 관심은 주희의 시문이 唐宋八家의 맥을 계승한 것으로 주희에 의해 文統과 道統이 합일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조익의 근본적인 목표가 문장이 아니라 성리학이었기 때문이다.<sup>58)</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6~17세기 조선사회에서 소식에 대한 비판론은 하나같이 문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반박하려는 목표의식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소식에 대한 비판론이 조선중기의 사대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논의들에 반영되어 있는 목표의식의 성격을 간과 한 것일 수 있다. 목표의식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러나 실현하기를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5) 趙翼,『浦渚集』권26,「朱文要抄後序」“抑又竊有所感焉, 世之知朱子者, 徒知其學問道德繼乎孔孟周程之統, 而至於文章, 則爲讓於世之所謂宗匠大家如韓柳歐蘇者. 竊恐此不知言者也。(중략) 竊見朱子之於文, 實博極天下之書, 凡韓柳歐蘇所取而爲法者, 無不涉其波流. 其文本乎六經語孟及西京以上諸子之文, 而於韓文歐蘇, 亦皆採取之. 以是, 其氣味之全完, 法度之精密, 立意之明白深切, 遣辭之贍足委曲.”

56) 趙翼의 이러한 논의는 이후 宋時烈에게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宋時烈,『宋子大全』附錄 권18, 語錄5 崔愼의 기록(下).

57) 姜文植, 2007 「趙翼의 학문 경향과 『朱書要類』 편찬의 의의」『韓國文化』 39.

58) 심경호, 2007 「浦渚 趙翼의 문학관과 문학」『한국실학연구』 14권, 150-157면.

### 3. 조선중기 소식에 대한 긍정론의 성격

조선중기 도학자들이 소식을 비판했던 주된 논의는 도학의 영수 정이에 대한 소식의 정치적 공격과 소식의 사상에 내포된 비성리학적 측면들에 집중되었다.<sup>59)</sup>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주희가 소식을 비판했던 논의들과 동일한 맥락을 공유했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중기 소식에 대한 비판을 사대부 사회의 주된 논의로 이해했던 것은 성리학의 정착과 확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중기 사회에서 성리학이 갖는 위상을 감안한다면 소식에 대한 비판론과 더불어 그 반대의 긍정론 역시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에 대한 긍정론이 기존 연구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소식의 타월한 시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더불어 조선중기 사회에서 다수의 사대부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초기부터 지속되었던 문장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 역시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소식에 대한 기묘사립의 강도 높은 비판이 中宗代 연소한 사류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졌을까? 연소한 선비들이 모여 학문에 전념하던 성균관의 젊은 生員들은 이러한 소식에 대한 비판에 일정 부분 반감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성균관 大司成 宋麟壽가 문장이 아닌 의리에 관해 강조점을 두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자 일부 생원들은 “의리에 대한 교훈을 이 시대에 행할 수 있겠는가? 의리에 관한 교훈을 시행하다가 어느 세월에 과거를 준비할 것인가?”라며 반감을 표했다.<sup>60)</sup> 성균관 수장의 교육 방침에 대해 재학생들이 반감을 표현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무익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문장 공부는 과거시험에 직접적인 효용을 보이는 반면 의리에 대한 훈련은 어떠한 이득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으로 인해 당시 생원들이 의리를 강조한 수장의 교육 방침에 대해 “주자가 우리 동방에 다시 나왔군.”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59) 소식의 인물됨과 산문에 대한 조선시대 전시기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조규백, 2012 앞의 논문 참조.

60) 『中宗實錄』 中宗 37년(1542) 1월 18일.

이러한 유생들의 반응은 문장의 현실적인 효용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사대부들 사이에 정착되었던 것과 달리 도학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했기 때문이다. 漢唐 이래의 참다운 유학자를 묻는 질문에 한 생원이 소식을 거론하자, 당시 동지성균관사였던 金安國은 소식의 趨向이 올바르지 않음을 들며 생원의 의견을 반박했다.<sup>61)</sup> 그러면서 “유생이 性理學을 몰라서야 되겠는가.”라는 탄식을 했다. 이는 도학을 천명하려 했던 일부 사류들과 달리 다수의 연소한 사류들에게 소식은 ‘참다운 유학자’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식에 대해 참다운 유학자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연소한 사류들만의 생각이었을까?

穆陵盛世로 표현되는 문운의 용성을 이끌었던 국왕 宣祖는 소식의 시문을 애호했던 인물이다. 선조가 소식의 글을 보려고 하자 경연에 참여했던 趙廷機는 소식의 심술이 바르지 않다며 반대했다. 또한 함께 경연에 참여했던 金宇顥도 비록 문장은 뛰어나지만 심술이 바르지 않으며 뽑내고 비뚤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도를 아는 군자가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희가 이미 상세히 논의했다며 역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선조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이 선하지 못하다 하여 선한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람이 바르지 않다 하여 그 글까지 버린다면 또한 편벽된 일이 아니겠는가? (중략) 내가 듣기로는 아래의 신하들이 모두 동파의 글을 즐겨 본다 한다.<sup>62)</sup>

조정기와 김우옹이 정이와 주희의 논의에 기반해 국왕이 소식의 문장을 애호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선조는 비록 그 사람의 행실이 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뛰어난 시문마저 폐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함을 강조했다. 더구나 이미 대다수의 신하들이 소식의 시문을 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식의 시문을 반대하는 의견에 더욱 수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조의 입장에서 소식의 문장은 중국과의 외교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61) 『中宗實錄』 中宗 37년(1542) 1월 18일.

62) 『宣祖實錄』 宣祖 6년(1573) 12월 10일 “不以人廢言，若以人之不正，而廢其書，不亦偏乎。 (중략) 予聞在下諸臣，皆好看東坡。”

가치를 지니는 존재였다.<sup>63)</sup> 그러므로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 선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선조와 같이 소식의 시문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인물로 장유를 거론할 수 있다.

조선중기 문장사대가의 일원이었던 張維(1587~1638)는 문장에 화려함과 내용이 다 함께 갖추어져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어느 하나를 택해야만 할 때에는 내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도문론을 표방했던 인물이다.<sup>64)</sup> 그러나 장유는 문장에는 본래 정해진 값이 있고, 그 가치는 작가의 사회적 지위보다 문장 자체가 이룩한 성취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문장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sup>65)</sup> 또한 문장은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辭達’과 함께 “말에 문채가 나지 않으면 멀리 전해질 수 없다.”는 공자의 언급을 토대로 문장의 아름다움인 文采와 내용인 실질이 함께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sup>66)</sup>

문장과 도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장유의 생각은 소식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구양수로부터 蘇轍에 이르는 북송의 대표적 문인들이 文運이 밝아질 정조 이후에 등장했다고 지적한 장유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 열 분의君子들로 말하면, 혹은道德으로 혹은文章으로 당세에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름을 드리워 백세토록 높이 떠받들어지는 분들이다. 30년 간에 걸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어울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정말 성대하다고 이를 만하다.<sup>67)</sup>

이 글에서 장유가 거론했던 10명은 구양수, 蘇洵, 邵雍, 周敦頤, 司馬光, 張載, 程顥, 정이, 소식, 소철이다. 이 중에서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는 北宋五

63) 宣祖는 『文章宗範』에 韓愈, 柳宗元, 歐陽修와 함께 蘇軾의 문장을 편집하라는 비망기를 내리며 이들의 문장이 중국을 사대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宣祖實錄』宣祖 38년(1605) 5월 27일.

64) 張維, 『谿谷先生集』 권3, 「答人論文」.

65) 張維, 『谿谷漫筆』 권2, 「文章自有定價」.

66) 정우봉, 2000 「朝鮮 후기 산문이론의 전개와 그 성격(I)」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153-154면.

67) 張維, 『谿谷漫筆』 권1, 「宋藝祖乾德丁卯五星聚奎爲天下文明之祥」 “此十君子者，或以道德，或以文章，皆能名世垂後，爲百代所宗。而後先三十年間，蔚然竝生，可謂盛矣。”

子로서 주희의 성리학 집대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고,<sup>68)</sup> 사마광은政界의 대표자이며, 구양수와 三蘇는 북송의 문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장유를 비롯한 조선중기 사대부들에게 주희와 북송오자는 불변의 가치를 지니는 성리학의 모범이었고, 이들이 표방했던 성리학적 도문론에 장유가 공감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sup>69)</sup> 그런데 주희가 표방했던 성리학적 도문론의 이데올로기가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 엄격한 이단 비판을 수행했던 것과 달리 장유에게는 그러한 철저한 이단 비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교 및 도교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sup>70)</sup> 뿐만 아니라 도와 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장유는 도의 절대 우위와 그에 종속되는 문장이 아니라 도와 문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위의 글과 더불어 장유의 문집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중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던 성리학의 도통 문제와 연관이 있다.

주세봉과 조익 같은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성리학과 이단 비판에 깊이 공감하는 동시에 도문론에 관해서도 주희와 동일한 입장에서 소식을 평가했다. 중종대 이후 도통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며 선조대 도통론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文廟 從祀 논의가 조정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때 도학자들의 가장 주된 강조점은 도학의 전수 여부였다.<sup>71)</sup> 孔門의 四科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은 德行인데 이 덕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도학이고, 이 도학을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실천했던 인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

68) 李東熙, 1997 「朱子學 形成에 관한 一考察」『동서문화』 제29집, 87-96면.

69)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틀어 어느 누구도 도가 근본이고 문장이 말단이라는 대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문학론이 과연 문학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실제적 논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성리학적 도문론인 載道論과 性情論은 구호적인 성격이 강해 실제 문학 창작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문학비평사는 재도론과 성정론을 억압적 담론으로 간주해 그것으로부터의 탈피를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지적이 참조된다. 강명관, 2002 「한국한문학 연구의 반성과 새 방향」『한국학논집』 29, 6면.

70) 오세현, 2012 앞의 논문, 97-105면.

71) “문묘 종사는 도학을 전수한 것만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李珥의 文廟 종사 를 제기한 주장의 주된 근거 논의였다. 『仁祖實錄』 仁祖 13年(1635) 6月 6日.

존하여 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표본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바로 조선중기 문묘 종사 논의의 핵심이었다.<sup>72)</sup> 이 때 도학은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절대적 우월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유는 성리학자들이 절대불변의 유일한 가치로 강조했던 도학을 문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통의 계보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했던 북송오자와 소식을 동등한 위치에서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유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許筠(1569~1618)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허균의 스승이자 조선중기 三唐詩人의 한 사람인 李達은 정사룡으로부터 두보와 소식을 배웠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스승 朴淳으로부터 “소식의 시가 비록 호방하지만 이류로 떨어진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후 최경창, 백광훈과 사귀며 唐詩에 전념했다. 그런 이달에게 시를 배운 허균 역시 당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sup>73)</sup> 허균이 평소 존경한 인물은 도연명과 이백, 그리고 소식이었다.<sup>74)</sup> 허균은 본래 이달에게 시를 배우기 전에 이미 仲兄 許筠으로부터 한유와 소식의 시문을 배웠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 호의를 갖기 이전에 이미 소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sup>75)</sup>

허균의 소식에 대한 존중은 송대 시문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허균이 지은 『宋五家詩鈔』는 뜻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典故의 인용에 힘쓰며, 잘 쓰이지 않는 韻을 사용하는 등 송시가 지닌 문제에도 불구하고 송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왕안석과 소식 등의 시를 선별한 선집이다. 秦漢古文에 탁월

72) 문묘 종사 논의에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에서도 반드시 대외적으로 표방되는 명분은 도학이었다.

73) 許筠, 『惺所覆瓿藁』 제5권, 文部2 「蓀谷集序」.

74) 허균은 畫具 李楨에게 도연명, 이백, 소식의 초상을 그리게 하고, 스스로 賛文을 짓고, 韓濩에게 단정한 楷書體로 이름과 관직 등을 金泥로 쓰게 하여 집안에 걸어두고 감상했다. 許筠, 『惺所覆瓿藁』 제14권, 文部11 「三先生贊(并引)」.

75) 조선중기 唐詩가 유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사대부들은 허균처럼 당시를 배우기 전에 이미 조선초기부터 學詩의 기본이었던 宋詩를 배웠다. 이것은 唐詩를 주창했던 삼 당시인의 한 사람 李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달이 朴淳에게 당시의 중요성을 처음 배우기 전에 鄭士龍에게서 杜甫와 蘇軾의 시문을 배워 수많은 시문을 송시에 기반하여 짓고 있었다. 許筠, 『惺所覆瓿藁』 제8권, 文部5 「蓀谷山人傳」.

한 능력을 보였던 허균은 송시를 선별한 이유를 묻는 지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한고문과 송시의 장점이 각자 다르고 자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한고문이 아닌 송시를 따르고 있었다며 송대의 시문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sup>76)</sup>

허균은 송대 문인 중에서 특히 구양수와 소식을 높이 평가했다. 구양수의 문장은 풍채가 힘차고 아름다움과 감정과 생각이 감동적인 반면 소식의 문장은 베를 짜듯 자유자재로 문장을 구사하여 변화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 신묘함을 해아릴 수 없다고 했다.<sup>7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한고문만을 최고로 여기는 일부 사대부들이 구양수와 소식의 글을 가볍게 생각하고 외면하는 태도를 비판했는데, 주목할 점은 허균이 진한고문론의 논의를 반박하며 구양수와 소식을 높이 평가할 때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문장은 각기 나름대로의 의의(味)가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중기 문단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던 진한고문론에 동참하는 동시에 문장이 지닌 독자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소식의 글이 지닌 가치를 높이 평가한 허균의 논지는 진한고문론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진한고문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허균을 최고로 평가하는데, 실제로 허균의 글이 대체로 일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고문론 자체의 성격에 대해 혹자가 물었다. 이에 허균은 공자의 ‘文辭는 의사를 전달할 때름’이라는 원칙론을 제시하며 글이란 군신상하의 의사를 소통하고 道를 실어 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경과 함께 도가의 서적은 물론 제자백가의 글들이 모두 자신들의 도를 전달했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가 있었는데, 후대에 이르러 글과 도가 두 갈래로 분리되어 典故를 끌어오고 교묘한 말로 어렵게 꾸미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다시 혹자가 左氏, 莊子, 司馬遷, 班固, 한유, 柳宗元, 구양수와 함께 소식을 거론하며 이들의 글이 일상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판하자 허균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76) 許筠, 『惺所覆瓿藁』 제4권, 文部1 「宋五家詩鈔序」.

77) 許筠, 『惺所覆瓿藁』 제13권, 文部10 「歐蘇文略跋」.

그 몇 분의 글 또한 일상의 용어와 무엇이 다른가. 내가 보건대, 비록 간결한 듯도 하고 응흔한 듯도 하며, 심오한 듯도 하고 분방한 듯도 하고 굳세고 기이한 듯도 하지만, 대체로 그 당시 일상의 용어를 가지고 바꾸어서 고상하게 만든 것이니. 참으로 셋덩이를 달구어서 황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좌씨는 스스로 좌씨이고, 장자는 스스로 장자이며, 시마천·반고는 스스로 사마천·반고이고,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 역시 스스로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이어서 서로 답습하지 않고 각각 일가를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다.<sup>78)</sup>

허균은 학문과 문장을 배우는 과정에서 중형 허봉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 허봉은 문장을 배울 때 『左傳』, 『戰國策』과 『史記』 등 역사책을 공부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소식의 시문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sup>79)</sup> 그러한 형으로부터의 가르침과 더불어 허균은 일상의 용어를 고상하게 만드는 문장이야말로 쇠를 달구어 황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주희가 문장을 짓는 일을 폄하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장유와 허균을 비롯한 조선중기의 소식에 대한 긍정이 남송대 주희의 소식 비판과 연관되는 시대적 연관성을 주목하게 한다.

주희는 문장을 짓는 일이 도학에 해가 된다는 정이의 논의를 그대로 계승하면서,<sup>80)</sup> 문장을 짓는 일을 실속 없이 화려한 말로 치부하며 오직 의리를 함양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sup>81)</sup> 소식의 글이 화려한 수식을 자랑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근본을 잊게 하고, 두루 통달하는 것만을 중시하여 명분과 檢束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희의 반응에서 주목할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식의 시문을 추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희가 6촌 동생 程洵(1135~1196)에게 문장의 폐단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순이 소식과 소철 형제의 글을 모범으로 삼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2)</sup>

78) 許筠, 『惺所覆瓿藁』 제12권, 文部9 「文說」 “數公之文, 亦何異於常耶。以余觀之, 雖若簡若渾若深若奔放若偏奇, 率當世之常語, 而變爲雅眞, 可謂點鐵成金也。(중략) 左氏自爲左氏, 莊子自爲莊子, 遷·固自爲遷·固, 愈·宗元·脩·軾亦自爲愈·宗元·脩·軾, 不相蹈襲, 各成一家。僕之所願, 願學此焉。”

79) 許筠, 『惺所覆瓿藁』 제26권, 附錄1 「鶴山樵談」。

80) 程頤, 『二程遺書』 권18, 作文害道條。

81) 朱熹, 『朱子大全』 권41, 「答程允夫(2)」。

주희의 6촌 동생을 비롯해 당시 사람들이 문장에 주목했던 이유는 주희의 지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학은 즐길만한 소리나 빛깔, 냄새나 맛이 없는 반면 문장은 화려하고 종횡으로 변화를 보여주어 세속의 이목을 현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sup>83)</sup> 게다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문장의 현실적인 효용이었다.

주희는 조정의 관료 선발권을 갖고 있던 吏部尙書 汪應辰(1118~1176)에게 편지를 보내 과거시험에서 소식의 문장을 따라 쓴 두 사람을 발탁하며 다른 수험생보다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항의했다.<sup>84)</sup> 주희가 이처럼 조정에 진출하는 신진 관료의 선발에 관여하며 소식을 비판했던 이유는 당시 다수의 젊은 문인들이 소식의 시문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희가 볼 때 경술과 덕행에 치중해야 할 선비들이 오히려 ‘천박하고 겉치레나 추종하며 사기치고 나쁜 짓’만 일삼고 있었는데, 주희는 그 이유를 바로 문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찾았다. 그리고 문장으로 인재를 선발하다 보니 경학에 능했던 孫復과 石介 등을 비판했던 소식의 논의가 당시 사회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sup>85)</sup> 손복과 석개는 주희가 북송오자 이전의 위대한 도학자로 존숭했던 인물들이다.<sup>86)</sup>

이처럼 주희는 소식의 시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조정에 진출하게 되면 쇠퇴한지 이미 오래된 도학을 진홍시키는 일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임을 걱정했다. 조선중기의 일부 도학자들은 허균이 소식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며 주희가 소식을 비판할 때의 걱정과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주자학적 德治論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法制와 같은 국가의 외적 규범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sup>87)</sup> 문학론에 대해서도 허균은 文以載道를 강조하는 철저한 성리학

82) 朱熹, 『朱子大全』 권41, 「答程允夫(1)」.

83) 朱熹, 『朱子大全』 권41, 「答程允夫(3)」.

84) 이때 朱熹는 蘇軾의 글이 쓸모없고 임기응변에나 능한 술책이라고 비판하며 오직 孔子, 子思, 孟子와 程頤의 책을 읽을 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 것을 왕응진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朱熹, 『朱子大全』 권24, 「與汪尙書書(1)」.

85) 蘇軾, 『東坡全集』 권51, 「議學校貢舉狀」.

86) 朱熹, 『朱子語類』 권129, 24번째 조항.

87) 정호훈, 2003 「許筠의 學風과 政治理念」 『한국사상사학』 21집.

적 문학론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8)</sup>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소식과의 사상적 공감대 역시 허균이 소식을 존중했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허균의 독서와 공부가 조선전기 문인들의 독서 및 공부 방법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sup>89)</sup> 조선전기에 높았던 소식에 대한 존중이 조선중기의 허균에게서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희가 남송대 도학과 문장의 현실적 역학관계를 걱정했던 것처럼, 허균과 허균에 대한 일부 도학자들의 비판에서 조선중기 일부 도학자들의 문장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과 그러한 비판적 시선을 야기한 조선중기 문장과 도학의 역학관계 역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허균과 같이 성리학적 문학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소식의 시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또 하나의 인물로는 申欽(1566~1628)이 있다. 신흠은 조선중기 고문론의 영향을 받아 당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宋詩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인정했고,<sup>90)</sup> 도학과 문장의 관계를 근본과 말단으로 간주하는 성리학적 載道論에 입각해 있었다.<sup>91)</sup>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신흠은 조선중기 도학자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신흠이 소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도학자들과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東坡(蘇軾)는 시나 문이나 모두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당나라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자들은 늘 동파를 헐뜯는데, 만일 아름답고 고운 작품을 추려내어 대략 몇 권의 책으로 만든 다음 세상에 유행시킨다면, 동파가 어찌 당나라 시인들이 그 시대에 화려하게 꾸몄던 것보다 못할 리가 있겠는가. 단지 동파의 시 세계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 우물 안 개구리의 소견으로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는 탄식을 금할 수 없게 될 뿐이다.<sup>92)</sup>

88) 강명관, 2005 「許筠「文說」의 새로운 해석」『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358-360면.

89) 허균이 조선전기 문인들의 독서와 공부 방법을 계승했다는 지적은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김풍기, 2005 「허균의 문학적 토대와 독서 경향」『인문과학연구』 14, 37-38면.

90) 朴守川, 2005 「晴窓軟談의 批評樣相」『韓國漢詩研究』 13.

91) 申欽, 『象村稿』 권50, 「晴窓軟談(上)」 文章小技 조항.

92) 申欽, 『象村稿』 권51, 「晴窓軟談(中)」 “東坡詩文俱神境也。世之學唐者常訾之。若簡摘其艷麗，略爲數卷書行于世，何渠不若唐家時世粧耶。只以家數甚大，墮井之見，有望洋之歎爾。”

신흠은 이 글의 서두에서 고려시대부터 이미 과거 급제자가 배출될 때마다 33명의 소식이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소식에 대한 추앙이 지극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이르러 당시가 유행하며 새롭게 소식의 시문에 대한 비판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론에 반대하며 소식의 시는 결코 당시에 비해 수준이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식의 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물 안 개구리에 비유했다.

신흠이 당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소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이 ‘신흠만의 독자적인 반응이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흠 이전에도 즉 조선전기 다수의 사대부들의 경우 역시 소식의 시문은 물론 소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소식을 존중하는 경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선전기 소식에 대한 추앙을 대변하는 인물로는 徐居正(1420~1488)을 들 수 있다. 서거정은 소식의 시문은 물론 행적과 인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식을 존중했던 대표적 인물이다.<sup>93)</sup> 특히 소식의 시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측면에서 소식이 사대부의 모범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94)</sup>

그렇다면 신흠이 조선전기 이후 지속되었던 소식에 대한 존중의 흐름을 견지하면서 새롭게 등장했던 소식에 대한 비판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흠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東坡(蘇軾)는 호걸의 선비이다. 介甫(王安石)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패거리가 되려 하지 않은 것은 평소의 행동을 고수함이요, 淀水(司馬光)가 들어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도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니, 이만하면 ‘和而不同’한 자가 아니겠는가. 단지 程門(程頤의 門下)에 죄를 얻은 까닭에 晦庵(朱熹)이 힘써 공격했던 것인데, 세상의 儒者들이 마침내 남에게 뒤질세라 배척들을 하고 나섰으니, 이는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sup>95)</sup>

93) 서거정의 소식에 대한 존중은 그의 시문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특히 소식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문인의 모습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徐居正, 『四佳詩集』 권5, 「蔡子休家文與可墨竹」.

94) 서거정은 韓愈, 柳宗元, 歐陽脩와 함께 蘇軾을 ‘斯文의 大儒’라고 칭했다. 徐居正, 『四佳文集』 권6, 「送卞上人詩序」.

95) 申欽, 『象村稿』 권57, 「求正錄(上)」 “東坡豪傑之士也. 介甫當朝而不肯附者, 固素履也, 至

신흠은 소식을 ‘豪傑之士’라며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군자는 조화하되 부화뇌동하지 않는다[和而不同].”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며 최고의 군자라는 의미의 존중을 보였다.<sup>96)</sup> 그런데 단순히 북송의 정치적 대결 과정에서 정이와 대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며 소식을 적극 옹호했다. 신흠이 지적했던 ‘세상의 유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과 정치적 대립각에 있던 정이를 계승해 성리학을 집대성 한 주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흠은 소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으로 주희가 소식의 경전 해석을 상당 부분 취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sup>97)</sup> 조선중기 등장하기 시작해 조선 후기 확산되었던 소식에 대한 비판의 주된 논제가 소식의 비성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그러한 사상적 비판의 근저에는 북송대 정치 현실에서 정이와 대립했던 소식의 이력이 문제가 되었다. 주희의 성리학에 대한 공감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일텐데, 신흠은 그러한 비판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신흠의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한 평가는 주희가 정립했던 성리학의 도통과 조선 중기 등장하기 시작했던 조선의 성리학 도통론에 대한 공감이 여전히 사대부 사회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앞서 살펴보았던 장유와 허균이 당시 문단과 정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던 인물이라는 점과 더불어 신흠 본인 역시 조선중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던 인물이었음을 감안하면,<sup>98)</sup> 이들의 소식에 대한 평가는 일부 문인들만의 평가를 넘어서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於涑水入相，亦不雷同，此非和而不同者耶。只以得罪程門，晦庵攻之不遺餘力，而世之儒者遂擯之如不及，可謂過矣。”

96) 신흠은 소식의 문집을 읽고는 수백 년 동안 소식의 豪氣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칭송하기도 했다. 申欽, 『象村稿』 권5, 「讀東坡偶書」.

97) 申欽, 『象村稿』 권57, 「求正錄(上)」 蘇東坡經解朱子多取之 조항.

98) 신흠은 이정구와 더불어 당시 문단의 최고 명성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고, 그러한 평가는 신흠 사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月沙象村，同時齊名。前後論者，互有軒輊，當時文苑之論，頗以象村爲勝，觀谿谷所序二公文集，可見也。”

#### 4. 맷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소식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소식을 정치가 혹은 문장가라는 특정 분야 안에서 정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송대 사회에서 지녔던 소식의 사회적 영향력은 단지 문학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을 문장가로만 규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이룩했던 소식의 성과를 간과하는 것이다. 「赤壁賦」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들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명성을 얻었던 소식을 단순히 문장의 전범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스승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다. 실제로 소식은 북송대 사회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지녔던 인물이었고, 탁월한 문장력을 펼쳤던 동시에 대표적인 유학자였다. 유학자는 문장을 기본 소양으로 하면서 사회의 제반 문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며 정이를 비롯한 北宋五子의 학문을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채택했지만, 동시에 소식의 학문 역시 일정 부분 수용했던 것이다.<sup>99)</sup> 주희의 도학(성리학)만이 유일한 학문적 권위를 지녀야 한다는 조선중기의 일부 성리학자들이 소식을 문장가의 틀 안에서만 평가하고 더불어 부정적인 면모를 애써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조선중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이념 논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중기 문인들이 소식을 바라보는 당대의 사회적 의미이다. 조선시대 문장력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절대적 존재라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선행하는 가치를 지녔다. 조선중기의 성리학자 奇大升(1527~1572)은 고려왕조를 평가하며 이름난 인물이나 기록 있는 선비가 있기는 했지만 오직 송상한 것은 文章이며 勳業이었다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는데,<sup>100)</sup> 이것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중기까지 지속되고 있던 문장의 가치와 그러한 문장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바탕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후기 도학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사대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문장에 대

99) 朱熹, 『朱子大全』 권41, 「答程允夫(4)」.

100) 奇大升, 『高峯別集』 附錄 2권, 「請享疏」 “麗朝以來, 非無名人器土, 而所尚者, 文章勳業也.”

한 비판논의가 일부 도학자들에 의해 더욱 거세게 주장되었을 당시에도 문장의 가치에 대한 공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셋째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소식을 바라보는 인식의 내용이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부 기존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조선초기의 긍정과 조선중기의 부정, 그리고 다시 조선후기의 긍정이라는 순환적 인식과는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의 사대부들은 소식을 문장의 전범으로 인식했던 것과 동시에 소식을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지녔던 이상적 관료로 보기도 했고, 유학과 예학의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룩했던 학자로 바라보았다. 북송대 소식이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며 정치적 반대세력으로 기능했던 것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개인적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조선의 사대부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공자 이후 유학의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소식이 유학자로서 經世의 이념을 정치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조선 사대부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sup>101)</sup> 또한 『주역』과 『서경』 등 고대 유학의 경전에 대한 소식의 해박한 지식과 예의 실천에 대한 소식의 주장 역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이다.

조선중기 성리학의 사회적인 위상을 감안하면 성리학의 엄격한 이단 비판과 그를 바탕으로 한 도통론은 여전히 확고하고 유일한 사회의 대표적 가치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작문해도론에 기반한 소식에 대한 비판 역시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논의를 주도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당시 문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인들의 소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엇갈린 채 계속하여 비판의 논의를 보강하고 있었다.

주제어 : 蘇軾 朱熹, 문장, 도학, 도문론

투고일(2015. 5. 19), 심사시작일(2015. 6. 3), 심사완료일(2015. 6. 16)

101) 조선 초기 문물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소식의 經世論은 중요하면서도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太宗 후반 吏曹와 司諫院의 세력 균형 문제 논의 과정에서 臺諫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던 소식의 논의가 대간들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太宗實錄』 太宗 15年(1415) 8月 14日.

### 〈Abstract〉

## The scholar-gentry's mixed way looked at So-Sik(蘇軾) in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Oh Se-hyun \*

So-Sik(蘇軾) is the most influential mind during the Koryo and Joseon Dynasty. This article set up the coexisted praise and censure about So-Sik should be formed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Zhu Xi(朱熹) and the followers of Zhu Xi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criticize sharply So-Sik and his literature(文章) on the basis of Jeong Ih(程頤)'s Studies of the Way of Life(Do'hak/道學). But the other scholar-gentry who were more concerned with practical value of literature laid stress on So-Sik's literature and affirmed So-Sik's study and the other aspect.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as never a period that demonstrated full establishment of the Neo-Confucian philosophy in Joseon, in terms of politics, ideology and economy. And because it was still not fully integrated into the Joseon society, Neo-Confucianism was not a dominating discourse in the area of literature as well. In fact,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still had more literary figures who continued to respect and even prioritize the unique and independent role of literature. The criticism So-Sik and his literature on the basis of Zhu Xi's Do'hak(道學) couldn't take the lead in the discussion in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 about So-Sik and his literature are mixed among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criticism So-Sik and his sentence still reinforce the logic of commentary.

**Key Words :** So-Sik(蘇軾), Zhu Xi(朱熹), Literature(文章), Studies of the Way of Life(Do'hak, 道學), Domunron(道文論)

---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